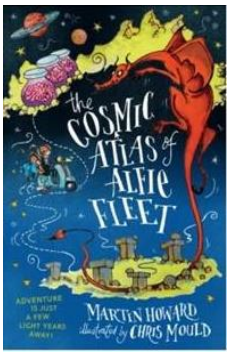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COSMIC ATLAS OF ALFIE FLEET
가제 : 알피와 우주 지도
저자 : Martin Howard(글), Chris Mould(그림)
출판사: OUP Oxford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36쪽
장르 : 모험소설 / 9세 이상



*** 괴짜 교수와 함께 우주 지도를 그리러 탐험을 떠난 소년, 특별한 행성 네 곳에서 펼쳐지는 신기한 모험**

단기 아르바이트가 절실한 소년이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집에서 이상한 교수를 만난다. 분명히 '허리가 아파서 하루만 짐을 대신 들어줄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였는데, 대문을 열 때부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만 내뱉던 그 교수는 다짜고짜 소년을 데리고 길가에 있는 큰 돌로 향한다. 그 돌 주변을 몇 번 빙빙 돌기 시작하자, 방금 전까지 서 있던 골목이며 주변의 음식점, 지나가던 사람들이 싹 사라지고 눈 앞에 끝도 없이 펼쳐진 유리병이 나타난다. 분홍색 액체가 가득 차 있는 거대한 유리병 안에는 뇌가 들어 있다! 이게 다 무슨 일일까? 엄마 생일선물 하나 장만하려다 우주 여행을 하게 된 알피의 기상천외한 모험은 그 때부터 시작된다.

생선 시장에서 하루 열두 시간, 어떤 날은 열네 시간이나 서서 생선을 손질하는 엄마는 늘 피곤에 절어 집에 돌아오곤 했다. 아무리 박박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생선 냄새를 풍기며 종이처럼 얇은 벽 뒤에서 알피가 들을 까봐 숨죽여 우는 엄마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느껴질 때마다 알피는 가슴이 아팠다. 점심 도시락이 맨날 엄마가 가게에서 가져온 자투리 생선으로 끓인 생선 수프고, 옷은 다 낡고 해져서 길가에 노숙자들까지 동전을 건넬 정도로 남루한 차림으로 학교에 다녀야 하는데도 알피가 그런 불만을 한 번도 입밖에 내지 않는 건 엄마가 이 가난한 살림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노력하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아빠가 엄마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이웃집 다른 여자와 놀러 다니고 급기야 아예 집을 나가버린 후 엄마는 아빠가 쓴 카드 값을 채워 넣느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해야 했다. 알피는 이번 엄마의 생일은 맨날 일하느라 고생하는 엄마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사야겠다고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 목표는 어느 날 엄마가 두고 간 중고 잡지에서 발견한 '족욕기'였다!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발과 다리가 늘 쑤시고 아픈 엄마에게 너무 필요해 보이는 족욕기의 가격은 149.99 파운드. 수중에 생일날 엄마에게 받은 5 파운드밖에 없었던 알피는 무조건 그 돈을 마련하리라 결심한다.

사람들이 읽고 버린 경제신문을 탐독하기 시작한 알피는 학교 도서관 컴퓨터를 이용하여 5파운드로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몇 개월 만에 100 파운드로 불리는데 성공했다! 엄청난 쾌거였지만 족욕기를 사려면 아직 49.99 파운드가 더 있어야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주식거래 거의 없어' '시장 침체' 같은 기사만 실렸다. 당장 엄마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다급해진 알피는 문제의 짐 들어줄 사람 구한다는 광고를 발견했다. 금액도 딱 정확하게 49.99 파운드를 주겠다고 하는데다, 주소도 집에서 몇 분만 걸어가면 되는 곳이고 마침 방학이라 학교에 안 가도 되니, 이건 하늘이 도운 기회 같았다. 엄마가 시장에 출근하자마자 외투를 입고 광고에 나온 주소지로 달려갈 때만 해도, 알피는 그 날 집에 돌아오지 못할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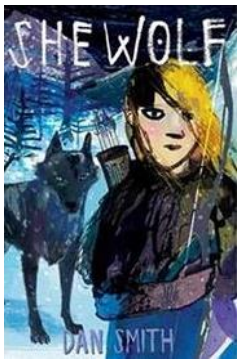
퓨슬리라는 이름의 콧수염이 덥수룩한 교수는 자신을 '특별한 지도 클럽'의 구성원이며, 알피의 집보다 더 허름하고 살짝 치면 지붕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너저분한 집을 '클럽 본부'라고 소개했다. 벽에는 '모린 행성'이라고 큼직한 제목이 붙은 지도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자 어제까지 그 행성에 있었는데 사막에서 거대한 모래 랍스터에 쫓기다가 그만 허리를 삐어서 광고를 낸 것이라는, 이상한 말을 이어갔다.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 아닐까? 알피가 도착하기 직전, 밀린 집세를 당장 내라고 호통치는 집주인의 말소리도 들었는데, 이렇게 다 무너져가는 집에 사는 이상한 교수가 49.99 파운드를 정말 줄 수 있을까? 알피는 시작부터 퓨슬리 교수가 의심스러웠지만, 집에 TV도 없고 컴퓨터도 없어서 시간 날 때마다 늘 책을 읽었던 알피는 왠지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주저하는 사이 교수는 여행가방을 들고 나와 알피에게 들라고 하고 뇌가 담긴 유리병들이 끝없이 서 있는 곳으로 훌쩍 떠나온 것이다. 그제야 알피는 교수가 속해 있다는 지도 클럽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특별한 행성을 두 발로 직접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만드는 곳임을 알게 된다. 뭐가 됐든 무사히 일을 끝내고 약속한 돈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한 알피는 퓨슬리 교수와 함께 '병 속에 뇌가 담긴 세상'에 이어 '기이한 행성'으로 향하는데, 그곳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만다.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잘못하여 없애버린 것이다! 이제 남은 방법은 새로운 경로를 찾는 것뿐인데, 과연 엄마가 퇴근해서 돌아오기 전에 무사히 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생전 처음 와본 행성에서? 집에 돌아갈 길을 찾아 헤매던 알피와 교수는 무조건 와서 몸을 부딪히는 왈가닥 소녀 데렉과 용맹한 기사 브렌다 부인, 엘프 왕자 후드윙크, 그리고 금만 보면 마구잡이로 모아대는 거대한 용과 만난다. 스릴과 신기한 모험이 가득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마틴 하워드(Martin Howard)는 프랑스 남부에 살면서 재미 있고 유머러스한 아동 소설을 쓰고 있다. 『Germs』와 『How to Cook Children』은 각각 TV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Witches at War 시리즈를 발표했다.

크리스 몰드(Chris Mould)는 수상 경력이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로 20개 언어로 번역된 베스트셀러 『Father Christmas and Me』의 삽화를 담당했다.

제목 : SHE WOLF
가제 : 늑대를 안은 소녀
저자 : Dan Smith
출판사: Chicken House
발행일: 2019년 3월 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독자들을 사로잡는 작가" – 「스코츠맨(The Scotsman)」**
*** 암흑기, 866년 영국을 배경으로 복수를 꿈꾸는 바이킹 소녀가 펼치는 잊지 못할 모험**

배에 실려 바다 위를 떠다니다 거친 폭풍에 휩쓸려 영국 북서부, 노섬브리아에 닿은 바이킹 소녀 일바는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보다 더 강렬한 감정에 휩싸였다.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엄마가 죽고 의지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고아가 되었다는 침통함, 그리고 엄마를 무참히 살해한 자를 반드시 찾아내서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일바의 머릿속에 가득했다. 손가락이 세 개밖에 없었던 그 잔인한 살인자를 찾는 건 엄마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바가 타고 자란 지역에서는 반드시 치러야 할 의식과도 같은 일이었다. 엄마가 죽었지만 복수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리라 결심한 일바는 곁을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인 개 게리를 말동무 삼아 손가락이 세 개인 바이킹 사냥꾼을 찾아 나선다.

무작정 길을 나선 일바의 앞에 열세 살인 일바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색슨족 아이들 둘이 나타난다. 캐슬린과 브론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 아이들은 일바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복수 같은 건 다 잊고 자신들과 함께 지내자고 제안하지만 일바는 색슨족은 못 믿을 사람들이라고 들어왔고 그렇다고 생각했기에 둘의 말을 믿지도 않고 중요한 이야기는 털어놓지도 않는다. 두 사람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바이킹 사냥꾼을 찾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다시 길을 떠난 일바는 홀로 산길에 들어선 후에야 큰 두려움을 느낀다. 그나마 곁에서 일바가 하는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리라도 있기에 얼마나 다행인가, 작은 위로를 받으며 엄마가 살아 있을 때 들려준 이야기들, 엄마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용기를 끌어 모은 일바는 숲 속에서 야영 중인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난다. 친절하고 다정하게 일바를 챙겨주는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고 느낀 일바는 지금 엄마를 죽인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며, 도와준다면 아버지가 후하게 갚을 것이라 호언장담한다. 아버지가 바이킹들 사이에서 유명한 전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뱉은 사람들은 바로 바이킹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넘기는 악독한 노예상인이었고, 일바는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자신을 잡아 가둔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 다행히 홀로 길을 떠난 일바를 그냥 둘 수 없어 뒤쫓아온 캐슬린과 브론이 사태를 파악하고 일바를 구출하기 위해 노예상인들과 싸움을 벌인다. 격렬한 싸움 끝에 브론이 세 명의 목숨을 빼앗고 일바도 겨우 구해내지만, 자신들의 일당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노예상인 군단이 세 사람을 쫓기 시작한다. 펑펑 내린 눈이 가득 쌓

인 차가운 숲 한 가운데서 캐슬린과 브론, 일바는 잔혹하기로 소문난 바이킹 사냥꾼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 상인들은 일바가 간절히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원수, 손가락 세 개짜리 바이킹 사냥꾼과 한 패로 드러난다.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자 위기에 처한 세 아이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서 달아나기로 한다. 브론은 혼자 다른 길로 가고, 일바는 캐슬린과 함께 사냥꾼들의 눈을 피해 몸을 숨긴다. 열네 살인 캐슬린과 일바 사이에는 자연히 진한 동지애와 우정이 싹트고 색슨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믿지 못했던 일바의 마음도 거의 사라진다. 그런데 캐슬린은 일바에게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꺼낸다. 왜 있지도 않은 아빠의 존재를 그 사냥꾼들에게 거짓말했냐고 따진 것도 그랬지만, 게리에 관한 진실도 추궁했다. 사실 게리는 엄마가 살해당할 당시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일바의 눈에는 계속 게리가 보였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유령을 향해 자꾸 말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간 직후, 두 사람 앞에 자그마한 새끼 늑대가 나타난다. 죽은 어미 늑대 곁에 누워 숨이 붙어 있는 아주 어린 새끼였다. 그 늑대가 일바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꿰뚫어본 캐슬린은 죽은 게리를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고, 늑대는 개와 달리 위험한 동물이니 데려가서도 안 되며 지금 죽여야 한다고 설득하지만 예상대로 일바는 그 말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끼 늑대를 자신이 거둬서 돌보겠다고 고집부리는 일바와 다투던 캐슬린은 그만 실수로 넘어져 크게 다치고 만다. 당황한 일바는 캐슬린을 부축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계속해서 두 소녀를 찾는 바이킹 사냥꾼들과 함께 또 다른 무리가 둘을 뒤쫓기 시작한다. 바로 새끼 늑대를 되찾으려는 늑대 무리였다.

생각보다 심각한 부상을 입은 캐슬린은 점점 기력을 잃고, 일바는 최선을 다해 간호하며 어떻게든 상처를 낫게 하려고 애쓰지만 역부족이다. 결국 차가운 동굴에서 캐슬린은 숨을 거두고 만다. 이번에도 절대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일바는 이를 악물고 새끼 늑대를 부둥켜 안은 채 홀로 자신을 쫓는 두 무리를 피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발길 닿는 대로 달아나던 일바는 버려진 마을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브론과 재회한다. 캐슬린이 죽었다는 소식에 불같이 화를 내던 브론은 일바를 원망하며 화가 나 머리에 칭칭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당기고 그바람에 일바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비밀이 드러난다. 캐슬린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은 다 알고 있다고 나지막이 이야기했던 일바의 비밀은 무엇일까? 스카프 속에 숨겨왔던 표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브론의 설득에도 끝끝내 새끼 늑대를 늑대 무리에 내놓지 않으려는 일바는 무슨 일을 겪게 될까? 버려진 마을에서 둘을 뒤쫓던 사냥꾼들과 정면으로 맞닥뜨린 일바는 마침내 손가락 세 개짜리 살인자와 만나지만,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게 된 후에야 엄마를 죽인 자는 그가 아님을 깨닫는다. 그럼 누가 엄마를 죽였을까? 당혹스러워하는 일바에게, 캐슬린과 브론은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속삭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수없이 겪으면서 비로소 성장하고 세상을 배워가는 과정이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댄 스미스(Dan Smith)는 성인과 아동을 위한 소설을 써온 작가다. 저서로는 『Dry Season』, 『Dark Horizons』, 『The Child Thief, Red Winter』와 『My Friend The Enemy』가 있다.